

추위도 녹인 청년들의 기도의 열정

성령충만 소망충만... 청년봉사선교회 '2019 겨울수련회'



교단 각 교회와 단체, 지방회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의 겨울수련회가 개최되어 기도의 열기가 겨울추위를 녹이고 있다.

교단 각 교회와 단체, 지방회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의 겨울수련회가 개최되어 기도의 열기가 겨울추위를 녹이고 있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가 1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2박 3일간 전원성전에서 '자유를 향유하라' (갈 5:1)는 주제로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열렸다.

청년들은 주제를 따라 다채롭게 꾸며진 여러 순

서들을 통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 믿음을 견고히 하는 한편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과 시간 그리고 맡기신 모든 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바칠 것을 결단하였다.

수련회 첫 날 저녁 열린 특강에서 담회장 조용목 목사는 은혜로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속에

이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선교회 지도부장 권영호 장로의 기도 후, 조용목 목사는 요 8:32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특강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쁨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강조하며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그 답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바르고 확고한 성경관과 기독교관을 갖게 해주었다. 이어서 청년들은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성령충만을 위해,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임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2와 3일간 계속된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예배와 다양한 특강과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153홀리프로젝트의 북한 관련 전 사회, 공동체 활동, 조별·성전별 모임, 찬양과 성극 공연, 청년들의 주제발표회 등 여러 순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오직 성경중심의 바른 복음전파 주력 다짐

산간벽지, 농어촌·도시 미자립 교회 자비량 부흥성회 지원

부흥사회 2019 신년하례



신재영 목사
부흥사회 회장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월 22일(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임·회원 신년하례에 배 및 모임을 가졌다.

1부에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국 상황에서 부흥사회서 국기안보와 교회를 위해 바른 신학관을 바탕으로 한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말씀 증거가 있었다. 이에 앞서 20분간 대한민국 역사바로알기 동영상 시청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이어 조용목 목사는 고후 1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말씀증거를 통해 "부흥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신령한 영감으로 부흥하여 한국의 혼탁한 현실을 잘 분별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역사 바로알기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성경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며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침투해 오고, 성경해석도 제 멋대로 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온갖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떠벌려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2부 임·회원 모임에서 회장 신재영 목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흥사회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조직으로 정예화시켰고 앞으로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부흥사회 회칙을 정비하여 부흥사회의 임·회원들에게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해주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잘 숙지하여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또한 부흥사회에서는 2019년에도 산간벽지와 농어촌 및 도시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자비량 부흥성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부흥사들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세미나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흥사회 소속 회원교회 상호 간 왕성한 강단교류를 통한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사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높여가기로 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용목 목사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19~21)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한 존제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을 받아 지음 받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생물은 명령하시는 것으로 지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였으나, 인간의 경우는 그 육체를 직접 지으셨으며 직접 숨을 불어넣음으로 영적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귀중하지만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고나 질병이나 늙음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를 떠나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육체를 가진 영혼이라는 사실과 본질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하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권한은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조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 후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 모두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은 결국 지옥행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에게 자각히 복되고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므로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 큰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마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열렬히 타는 불에 녹아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리고는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은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의미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삶에 활기와 기쁨을 주는 요인이 되며 인생길에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약속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고 천사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으며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에만도 300여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아말로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재림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배치되는 것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릇된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셔서 만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 있는 자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을 함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면류관을 받으며 그의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오셔서 대속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 날에 경함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므로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연금법인 손실금 39억원 공동대처"

예하성-기하성-광화문측, '3개교단 연금관련 비상대책기도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두 교단 여의도 축종회장 이영훈 목사)와 서대문 측(총회장 정동균 목사)이 지난해 말 이강한 전략적 통합을 하며 하나님의성회 법인의 손실금 39억 원을 두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예하성(총회장 임웅재 목사), 기하성(총회장 김서호 목사), 기하성 광화문 축종회장 함동근 목사) 등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교단은 연금법인(이사장 이영훈 목사)의 손실금 39억 원이 재단법인(이사장 박광수 목사) 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넘어간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법인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을 두고, 연금법인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여의도-서대문 측에 맞서 기하성-광화문-예하성의 연대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분쟁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3개 교단은 연금정상화를 목표로 연금관련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희옥, 홍영준, 최은규 목사)를 조직하고 지난 1월 8일 서울 신수동 기하성 총회본부에서 '연금관련 비상대책기도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금법인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39억 원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이사회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소가 갑자기 취하됐다"면서 "이런 상황에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이 이뤄졌다. 이번 통합을 의도적 아랑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2200명의 가입자에 대한 대책과 사과, 보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 앞으로 연금법인의 파행과 이사회 운영의 문제를 밝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39억 원의 손실금에 대해 지난해 11월 연금법인

이사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었으며, "향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연금법인 이사장 및 이사회에 해명을 촉구하고, 방분단을 구성해 직접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연금법인의 해체설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에서 해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안다"면서 "일단 우선은 회원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에게 연금사고에 대한 진행상황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다. 그 후 총회를 통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체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우시흥 목사(기하성 총무)의 사회로 함동근 목사(광화문 총회장)의 개회사, 허정범 목사(기하성 서기)의 대표기도, 김서호 목사(기하성 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연금법인을 원상대로 되돌리지도 못함서 기도하자. 우리가 교단도 생각도 다르지만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호소했다.

예하성 총회장 임웅재 목사는 "은퇴 후 일용할 양식을 위해 10년 이상 부는 연금을 도둑질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를 행하고 방관한 사람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하성 광화문 축종회장 함동근 목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1월 중 가입자 총회 개최 △연금법인 해체 등의 소본 유료 중기 △연금법인 이사장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대표회장 후보 김한식 목사, 전광훈 목사

한기총, 후보자 공청회 23일 오후 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 후보에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와 김한식 목사(예장합동총장)가 확정됐다.

한기총 선관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수)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9-3차 선관위 회의를 열고 위의 사실을 전했다.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했던 김운복 목사(예장개혁)는 지난 14일(월) 선관위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공식 사퇴했다.

이날 후보자 기호추첨에서, 기호 1번에 김한식 목사, 기호 2번에 전광훈 목사로 결정되었으며, 후보자 공청회는 23일(수) 오후 1시에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기호 1번 김한식 목사 (예장 합동총장) 기호 2번 전광훈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

한장총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방문

10년간 1,500여 명의 아기를 받아 보호해 생모와 입양시설로

사단법인 한국청교도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지난 1월 15일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를 방문하여 베이비박스 운영 현장과 장애인생활공동체를 방문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베이비박스 운영현장에서 10년간 1,500여 명의 아기를 받아 보호하여 80%의 아기를 다시 생모에게 돌려주고 전체를 안전

하게 입양시설에 인계하는 활동에 대하여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와 방문자들은 개인 소독을 한 뒤 베이비박스를 통해 맡겨진 아기를 안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여섯 명의 아기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주사랑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는 미혼모들이 낳긴 아기들을 보호한 현황을 설명하고 유기에 대한 관련 법제정을 관악구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올린 후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송태섭 목사는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 생명을 살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관련법 제정과 국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장애인보호소에서 장애인들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송태섭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녹 22: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세상에서는 앞서 먹는 자가 큰 자이나,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한바, 이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일들은 세상을 떠뜻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중증장애인 보호관에서 이종락 목사는 중증장애인 아들 이은만(33세)이 누워있는 침대로 안내하여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였다.

이들을 돌보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실정으로 오늘의 장애인 및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을 소개하여 참석한 사람들을 숙연하게 하였다.



화해중재원, 각종 분쟁 성경적 원리로 해결 최선

제9차 정기총회…신임 법인이사에 최병락 목사 등 세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지난 1월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갖고, 각종 분쟁을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용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정관 제15조에 의해 68명 출석으로 개최되어, 회원점명, 개회선언, 개회사, 회순통과, 각종 보고,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기 문용호 변호사가 지난 해 경과 및 각종 사업을 보고하고, 감사 고영삼 장로가 감사보고를 하고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안건토의 시간에는 2018년도 제11기 사



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2019년도 제12기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19년 제12기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및 개임이사, 신임이사 및 감사추천의 건 등을 다룬 신임법인이사에 최병락 목사 등을 세웠다.

이에 따라 화해중재원은 2019년 상담과 조정, 화해와 중재, 법원 연계 조정 사업을 필두로 연구 및 교육, 훈련사업, 출판 및 홍보사업, 회원교회 및 기관회원의 확보 사업 등을 적극 전개기로 했다.

성결교연합단체 발전과 하나 됨 간절히 기원

한성연 신년하례회…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로 구성된 한국성결교회연합대표회장 김영수 목사는 2019 신년하례회를 지난 1월 10일 서울코리야나 호텔에서 갖고, 한성연 발전과 하나 됨을 간절히 기원했다.

나성 재무 송기전 목사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예성 부총회장 김중상 장로의 기도와 기성 서기 조영래 목사의 성경봉독(레 11:1-8, 19:1-2), 나성 감독 김영수 목사의 ‘너희는 거룩하라’란 제사의 설교 순서로 진

행했다.

김영수 감독은 한성연 가족 모두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성결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랐다.

특히 김 감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 생각과 가치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부정할 것 죄라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성연이 거룩성을 통해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성 총회장 윤기순 목사가 축사를 통해 “0.8초의 기적, 감사”라는 화두로 금년 한 해 ‘행복’의 인사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성 총무 이관호 목사의 광고, 기성 부총회장 유정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년하례회에서는 기성 총무 김진호 목사와 예성 총무 이강준 목사, 나성 총무 이관호 목사 등이 각 교단 임원 소개 및 인사를 진행했고, 상경례 후에 기성 부서기 이봉조 목사의 만찬기도에 이어 함께 식사를 나눴다.

한편 제9회 한성연 조직은 △대표회장 김영수 목사 △공동회장 윤기순 목사, 윤성원 목사 △공동부회장 조상을 목사, 장순필 장로, 류정호 목사, 홍재호 장로, 문정민 목사, 김종상 장로 △서기 광일기 목사 △협동서기 한만기 목사, 이상훈 목사, 유선호 목사, 조영래 목사, 이봉조 목사 △회계 송기전 목사 △공동회계 김중현 장로, 임호창 장로 △감사 이광진 장로, 유승국 장로 △간사 이관호 목사, 이강준 목사, 김진호 목사 등이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 2019신년하례예배

철통같은 국방태세와 한미관계 강화 요구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이하 한가지협)는 2019년도 신년 하례예배를 지난 1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김마리아홀에서 드리고 금년 한한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결집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날 한가지협은 메시지도 발표하고 “일본 아베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 해군당국이 요구하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즉각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선언문은 또 “우리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철통같은 국방태세와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한편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서민생활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선언문은 이어 한국교회에 당면한 종교인 과세 문제와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문제에 결사반대할 것도 아울러 천명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합동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의 기도, 회계 김영식 장로의 성경봉독, 용산구 어린이집 연합회 합창단의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예감 전 감독 손선영 목사는 행 13:22-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다. 그라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에는 통합증경총회장 최병두 목사·예성증경총회장 김재송 목사·지도자협 공동부회장 유병해 목사·지도자협 공동부회장 김병운 목사가 주체별 기도를 인도했다.

상임총무 김탁기 목사의 광고, 상임고문 서기행 목사의 축도 후 열린 2부 축하순서는 상임회장 김진호 목사의 사회로 회원교단과 단체에 대한 가입증서 수여 상임고문 지덕 목사의 격려사, 성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기협·한개협, 신년하례예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만을 전하자”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이하 한기협)는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한개협)와 2개 단체가 연합해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종로구 여전도회관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신년하례연합 예배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한기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예장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의 기도, 예장정통총회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중창단의 찬양과 예장정통총회 김병섭 목사의 세소폰연주, 한개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창 4:25-26, 요 5:1-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오직믿음 주님의 말씀만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만나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 새해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우리 협의회에 속해있는 교단, 동역자, 목사님들 해외선교사님들이 이제 병들고 지친 지구촌 인생들을 향해 병자의 치유함의 역사를 이행하고 이를 선포하여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대명의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기독교유권자연맹 창립총회 개최

기독교적 가치를 준수하는 정치인 발굴

‘기독교유권자연맹’이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유권자연맹은 이날 ‘기독교적 가치를 준수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호 관용/협력과 권력사용의 절제를 근간으로, 한국정치의 민주화, 선진화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며 이를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을 빠르게 선택하는 일을 돕고자 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예배는 원범연 목사(기성 전 총회장)의 사회로 남상훈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기도, 전성원 장로(한기총 전 공동대표의 성경봉독 후 전영재 감독(기감 전 감독회장)이 말씀을 선포했다.



전영재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렸다. 지금 건국일도 정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두려움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치인들은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못 하도록 기독교유권자연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욱 학장(경기대 전 국제대학

장)의 경과보고,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과)의 창립취지문 낭독, 계속해서 박위근 목사(예장통합 전 총회장)·류태영 장로(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정근모 장로(전 과거지점장, KIST 교수)의 격려사, 고시영 목사(세기총 전 대표회장)·유종현 목사(예장백석 전 총회장)·엄신형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총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신년하례예배 드려

“보수신앙을 다시 세우는 협의회가 되자”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소재 한기보협 비전센터에서 2019년 교단장 및 교계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기독교한국성결회 한상일 목사의 사회로 예장개혁합동총회 임준재 목사의 기도,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별찬

양, 기독교한국성결회장 한상일 목사의 마 5:14-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한상일 목사는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2019년 새해에는 보수교단협의회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

는 보수교단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김영호 목사가, ‘한국교회와 한기보협을 위하여’ 예장들로소총회 총회장 김해자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했으며,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창희 목사의 봉헌기도, 한국기독교영성총연합회 회장 애영수 목사의 격려사,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예장합동보수 총회장 이우식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예배를 마쳤다.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새해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기독교가 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보수교단협의회도 새로운 100년을 위해 보수신앙을 다시 세우는 협의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의의 길만 따르는 사역자 될 것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1월 8일(화) 오전 11시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협본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에서 신년하례회 및 월례회를 갖고 2019년 새



해에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법사에 감 사하며 오직 의의 길만 따라가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서로 축복하고, 비운 뒤에 땅이 굳듯이 혼란을 딛고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공고히 설 것을 다짐했다.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찬양인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연 뒤 드려진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경오 목사(북있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성령 목사(북진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회의 특송,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민 13:1-3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과 불신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궁정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궁정의 아이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이번에 경기남지방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올



은 길을 따를 때 더욱 튼튼해지고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오직 한 길만을 걷게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새해 회원 간 축복의 말씀을 건네며 신년하례회를 갖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마치고 협본산교회

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가진 후 새해 맞이 절제 윗놀이(일정한 점수를 목표로 절제하며 게임하는 윗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회원들과 함께 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의류들, 비빔밥, 햄 등 먹거리와 양팜, 떡 등 다양한 물품들을 서로 준비해와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말은바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

난 1월 8일(화) 오전 11시 은혜충만교회(담임 홍현철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

님의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대표기도,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삼상 6:12-14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언약 궤를 수레에 싣고 뱀새메스로 행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여호와께 반제물로 드려진 암송처럼 우리도 말은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다.

이어 통성기도 후 회계 박영옥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헌금기도와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마친 후 새해인사를 나누고 은혜충만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식사를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국가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1월 10일(목) 오전 11시 뜻 깊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2층에 자리잡은 텔리하우스에

서 신년하례예배 및 월례회와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영애 목사의 사회로 서기 조길수 목사의 기도, 회계 배영래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특별순서로 사모회에서 특송을 하였으며 회장 최정식 목

사가 장 30:37-43 말씀을 본문으로 "비바람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특별기도로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증경지방회장 조원채 목사의 지도에 이어 김정식 목사의 '총회와 지방회'를 위한 기도, 재무 박우진 목사의 헌금기도, 선교부장 김영호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직전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2부 순서에서는 신년하례인사와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악수와 포옹으로 새해의 덕담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3부 월례회를 간단히 마치고, 4부 순서인 목회자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총회와 지방회를 위하여 통성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고, 증경지방회장 주덕영 목사의 기도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2019년 새해를 즐겁고 행복할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 다짐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1월 14일(월) 순복음심원교회(담임 박운석 목사)에서 신년하례회 및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양정석 목사의 대표기도, 박상규 목사의 고전 3:9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의 설교,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도, 박상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에서는 회무처리를 하고 순복

음심원교회에서 준비한 애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2019년이 되길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1월 8일(화) 오전 11시 경주시 외동읍 모화공단길 104호에 위치한 한소망교회(담임

박기만 목사)에서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단과 지방회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신홍섭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권정식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이성석 회장의 엠 1:17-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재무 윤득주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축복의 인사와 덕담의 시간에는 증경회장단 최용운 목사, 박기만 목사, 오경덕 목사와 안양순복음교회 황수길 원로목사의 축복인사 후 최용운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충성하는 목회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월 8일(화) 오전 11시 구미 주천양교회(담임 진영갑 목사)에서 2019년 시무예배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대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서기 이항구 목사(주천양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코스

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23:1-6 말씀을 본문으로 "2019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충성하는 지방회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회계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헌금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시무예배를 모두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의 인도로 서기의 회원점명과 회계의 재무 및 회계보고를 받고 김영준 목사(울진갈릴리코스망교회)의 전도사임명 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천양교회)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후 주천양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금오산 부근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소망 중에 참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는 지난 1월 14일(월) 오전 11시 한희순복음교회(담임 이동수 목사)에서 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유영원 목사(내수평강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권영무 목사(우리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이동수 목사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롬 8:18-30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 중에 참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양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바울은 더욱 하나님 앞에 앞도려 기도하고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다. 목회자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연약함을 알았으면 소망 중에 참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목양 사역은 목회자의 뛰어난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재광 목사(생명샘교회)의 헌금기도, 강현(하나님의사랑순복음교회), 최재홍(순복음주요교회), 김미현(기쁨충만순복음교회) 전도사 인명과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의 진

난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정재광 목사(생명샘교회)의 헌금기도, 강현(하나님의사랑순복음교회), 최재홍(순복음주요교회), 김미현(기쁨충만순복음교회) 전도사 인명과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의 진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생명의 말씀



장 호 순 목사

· 충남지방회 중경회장
· 금강순복음교회 담임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는 심각한 타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가 480세가 되던 해에 홍수로 멸망할 것을 통보받았고, 10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로 인해 지구가 멸망하는 시간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죽었으나 노아의 가족 8식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점점 더 악화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노아의 구원신앙입니다.

1.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창 7:7)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대표합니다. 즉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철통같은 교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구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 배안에 노아의 식구들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잣나무는 푸른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사용된 잣나무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 신앙으로 세워져야만 구원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닐뿐더러 구원의 능력도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방주의 안팎에는 역경을 받았습니. 역경의 원인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피와 그 근원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역경은 예

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방주가 안전한 곳이었듯이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험한 풍파가 밀려 올 때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 진리가 사라진 이때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함께 방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무너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2. 명하신 대로 다 준행 하였더라(창 7:5)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있기 1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도 두려웠을 것이고, 120년 후에 과연 심판이 있

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인데 노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쾌락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행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3. 홍수 심판 때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창 7:23)

방주가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40주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난 심판 앞에서 노아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중심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가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열

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결코 무섭고 두려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노아 가족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방주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아라랏 산에서 새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면의 타락한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시작을 앞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하나님의 보호하심 끝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될 천국입니다.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오라!

이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겨 교회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 정

한국복음화운동본 신임회장 취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가 지난 1월 15일(화) 총로 5가 한국교회100주년 소강당에서 신임 대표회장 및 여성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와 하례식을 가졌다. 첫 여성 인사로 변화의 물결을 탄 정명희 목사와 신임 여성대표회장 김진복 목사의 취임은 사뭇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사렛대, 필리핀에서 해외 봉사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사회복지학부는 지난 1월 2일~14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아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해외 봉사를 실시했다. 사회복지학부 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해외봉사에서 학생들은 현지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 주변 청소 등을 실시했다.

100만 명 무료 진료 박상동 이사장



동서한방병원의 박상동 이사장은 주팔이던 교회를 찾아 무의탁 노인과 불우 이웃에게 무료진료를 펼친다. 박 이사장은 모든 일이 마음속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연인원 100만 명이 넘게 무료 진료를 펼쳤으며 1971년부터 쉬지 않고 한 진료를 금액으로 따지면 360억 원에 이른다.

문병원 회장, '대 한국인 대상'



한국기독교언론협회 회장 문병원 국장(한국교회공보)이 제13회 '2018 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언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문병원 국장은 정론직필을 통한 진실된 보도 뿐 아니라, 교계 언론의 발전과 각 언론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

KBS는 공영방송이다. 그만큼 공적 책임이 크며 국민들이 낸 '시정료'에서 운영되는 방송이다. 이 KBS가 지난 30년간 고수해온 프로그램이 있다. <심야토론>이다. 그 것을 지난해 6월부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으로 바꾸면서 아심자게(?) 새롭게 출발하였다.

사회를 맡은 엄경철 기자는 KBS에서 보도본부 통합 뉴스를 취재주간, 국제부,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골고루 거치고 KBS 8시 뉴스의 앵커로 활약한 인물이다.

지난 해 이 방송을 앞둔 가운데 언론에 소개된 것을 보면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는 어떤 질문도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민감한 이슈를 과감하게 주제로 삼아 격의 없고 진솔한 논의를 이끌어내며 전문가로부터 국민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이른 바, 통 큰 토론과 용기 있는 토론을 지향'한다고 소개되었다.

이후 28회에 걸쳐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벌여왔다. 이 토론 프로그램은 1.8%~4.0%에 이르는 시청률을 보이며 지난 1월 12일에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은 실패였다. 우선은 패널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다. 패

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덕경 서울대 교수, 손희철 문화평론가, 노혜경 시인 등이었는데 '차별금지법'을 염두에 둔 발언들로 일방적 주장만 듣는 시간이었다는 평가이다.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모든 것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몽둥고려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에 제재를 가하는 '차별금지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패널들이 주제와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발언을 하여 시청자들이 실망했다고 한다. 이렇다면, 가짜 난민

이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에서 그 문제점의 원천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있었고, 통계의 오류와 맹목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 난민의 증가와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의 '무시증제'로 외국인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마구 난민을 신청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체류하므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물론인 것이다.

또 길거리 인터뷰나 방청객 질문조차도 편향적인 발언으로 채운 것이 되었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공정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의도성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인 전파(電波)를 낭비한 것이다.

KBS의 간판 심야 토론 프로그램이 이 정도라면 KBS는 각성해야 한다. 지난 해 방송을 하기 전에 약속처럼 표명했던 '선택'과 '경청'과 '공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KBS는 이런 편파적이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방송을 수정하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편향되어 대다수 국민들이 시청하기에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부당한 방송을 중지해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경남학생인권조례 인식 대부분 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0일(목)부터 1월 11일(금)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 1.8%,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원가중))

“경남 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경남학생들의 학력향상’”

우선 경남 교육감이 학생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과반인 58.2%가 ‘전국 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및 급식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1%),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14.8%) 등의 응답 순서를 보였다.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전국 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6%p 증가하였다.

세부집단별로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3.4%), 만40~49세(61.3%), 만50~59세(61.5%), 창원권(63.6%)에서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5.2%p 하락한 7.9%였다.

【그림 1】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경남도민의 55.9%, 학생인권조례 ‘동성에 차별금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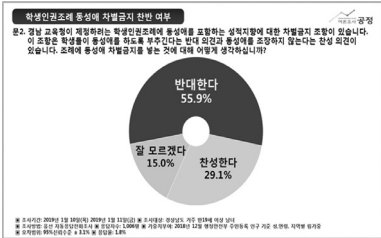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에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55.9%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에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0~39세(70.6%), 만40~49세(65.0%), 만50~59세(62.5%), 만60세 이상(61.0%)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47.3%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2)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서부내륙권(58.3%), 창원권(56.6%), 동부권(55.6%), 남부해안권(53.8%)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9.1%, ‘잘 모르겠다’는 15.0%였다.

【그림 2】학생인권조례 동성에 차별금지 찬반 여부



“경남도민 10명 중 6명,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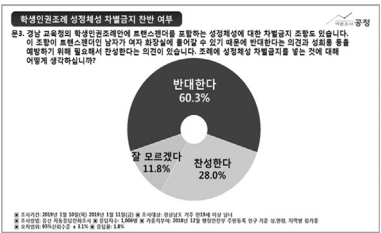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에 성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60.3%가 학생인권조례에 성정체성 차별금지를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0~39세(78.1%), 만40~49세(63.4%), 만60세 이상(58.9%), 만50~59세(57.8%)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에서는 ‘반대한다’ (44.1%)와 ‘찬성한다’ (42.2%)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 모든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서부내륙권(65.6%), 창원권(62.3%), 남부해안권(60.3%), 동부권(52.6%)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8.0%, ‘잘 모르겠다’는 11.8%였다.

【그림 3】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경남도민의 44.5%, 학생인권조례 성적을 떨어지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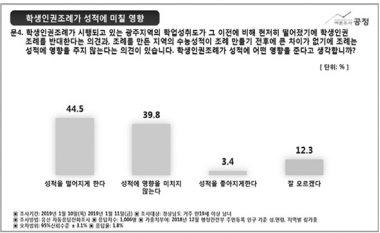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44.5%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47.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 (41.9%)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4%)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30~39세(53.3%), 만40~49세(51.8%) 연령층은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19~29세 연령층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6.3%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4) 창원권(50.5%), 남부해안권(42.7%)에서 ‘성적을 떨어지게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부권(45.1%)에서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39.8%, ‘성적을 좋아지게 한다’는 3.4%,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그림 4】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경남도민 58.7%,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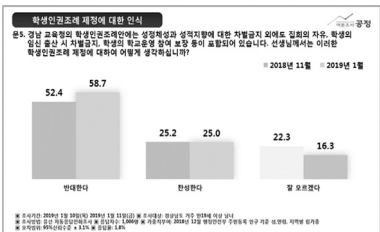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민의 과반인 5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6.3%p 증가한 수치다.

세부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60.2%), 여성(57.2%), 연령별로는 만30~39세(68.8%), 만40~49세(68.3%), 만50~59세(57.1%), 만60세 이상(51.9%), 만19~29세(50.7%), 지역별로는 창원권(62.5%), 동부권(61.7%), 중서부내륙권(57.2%), 남부해안권(50.4%)의 순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5.0%, ‘잘 모르겠다’는 16.3%였다.

【그림 5】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경남도민 35.4%,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경남도민의 35.4%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35.4%)와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이다’ (7.2%)의 응답 비율은 2018년 11월 같은 조사와 비교 시 각각 8.5%p와 3.4%p 증가한 반면,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 (27.7%)와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17.6%)의 응답 비율은 각각 5.6%p와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은 남성(37.7%), 만30~39세(41.2%), 동부권(36.5%), 중서부내륙권(39.2%)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 분위기가

위헌, 위법적 시정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이하 동반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를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송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2019.1.4정본). 또한, ‘무함만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송실대학교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18.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제 양성을 위한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동성결혼 옹호 영화 상영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대 의사 표현마저 억압하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인 채용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로 규정하며 시정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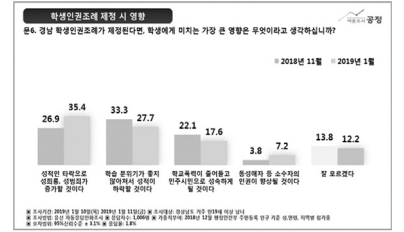
성명서
종교·반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를 교육의 공공성이나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 시정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

하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는 응답은 만40~49세(34.8%), 창원권(3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은 12.2%였다.

【그림 6】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정하지 못해..”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두 번의 공청회를 실시한 가운데, 그 과정이 공정하지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도민의 54.4%가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자 선정,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자 선정,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0.4%), 만30~39세(67.1%), 창원권(66.3%), 중서부내륙권(66.1%)에서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자 선정,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 송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2019.1.4정본). 또한, ‘무함만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송실대학교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18.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제 양성을 위한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동성결혼 옹호 영화 상영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대 의사 표현마저 억압하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인 채용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로 규정하며 시정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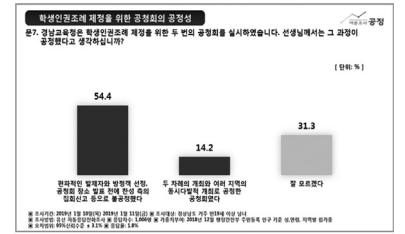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이다.

2019. 1. 17.

동성에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참여)

한편, ‘두 차례의 개최와 여러 지역의 동시다발적 개최로 공정한 공청회였다’는 응답 비율은 14.2%, ‘잘 모르겠다’는 31.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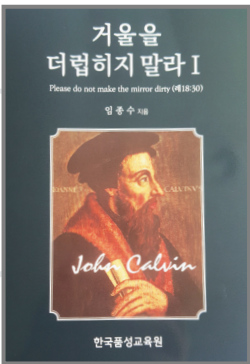
【그림 7】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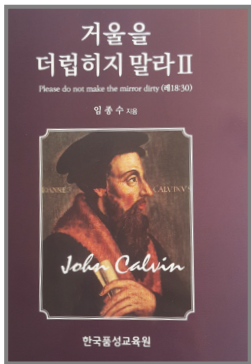
이런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에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목)부터 1월 11일(금)까지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원가중)를 적용했다.

이밖의 사항은 여론조사공정(주) 홈페이지(<http://www.gongjung.org>)를 참조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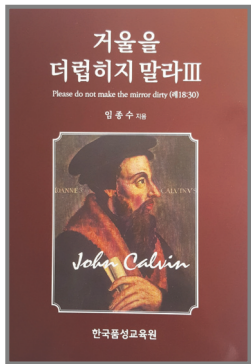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동성교육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리라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사역되어야

경기중부지방회

경기중부지방회(회장 김동문 목사)는 지난 1월 21일(월) 오전 11시 예수능력교회(담임 김연태 목사)에서 신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연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총무 최남순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동문 목사(동산중앙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사 7:10~14 말씀을 본문으로 '본질을 회복하자'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의 본질은 헛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며 이로써 맡겨 주신 양무리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경기중부지방회 회원 목회자들은 본질에 입각한 올바른 목회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이어 참석했던 회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및 소속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발전을 위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한 후, 지방회장 김동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또한 이번 다가오는 정가지 방회부터는 지방회장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 예수능력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1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철 목사)에서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만규 목사(충남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이미순 목사(한소망교회)의 대표기도, 교단 부총회장 엄기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신 8:1-8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의 교훈'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역보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려 하셨음을 기억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사명자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석인권 목사(하늘소망교회)가,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심권보 목사(반석위에순복음교회)가, 성령충만과 사역을 위해 차재현 목사(엘렌앨버트교

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최갑식 목사(도마동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병목 목사(금산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은혜와찬양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떡만뚝국을 나누어 먹고, 율동예배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각자 사역지로 돌아갔다.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연합회장

손혁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사무총장

안홍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후원계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운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충남도대표)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항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길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광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안홍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회원 아산시 35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광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이의중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도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805937-04-007183 민족복음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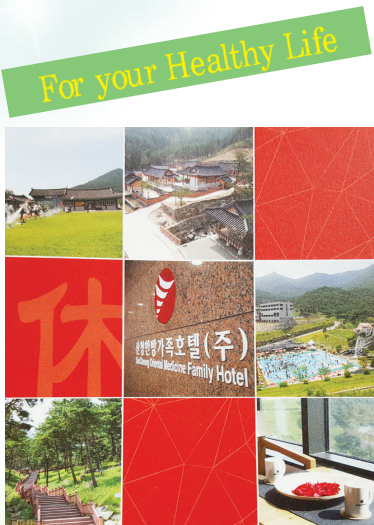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방회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월 10일(목) 오전 11시 송전교회(담임 윤정현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조광선 목사(순복음반석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목사는 시 18:1~2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 함축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다윗이 자신의 일생에 함께 하셔서 고난의 때에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여덟 가지 상징으로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함과 같이 2019년을 시작하는 지방회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힘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하였다. 아울러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탈선과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교계를 바라볼 때 목회자가 가져야 할 바른 성경관과 기독교인이 무너진 것에 기인함을 인식하고 다윗과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회계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

회)의 헌금기도와 증경지방회장 윤장현 목사(송전교회)의 권면과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새해의 덕담을 나누며 교제를 하였고 송전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식탁으로 기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①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②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③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r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척위원장	임종재 목사 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뮌엘교회	신재영 목사 새기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랑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랑**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9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 장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욱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전동운 목사 (시소망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제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종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생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뮌엘교회)	임기설 목사 (은혜와진영교회)	김희태 목사 (한진교회)	신재영 목사 (새기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수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강교회)	백영택 목사 (독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종은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전교회)	조선희 목사 (대림뮌엘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영복교회)	백동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회 계	감 사	감 사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회 원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김건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연욱 목사 (행복한신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델교회)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한명길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전주은영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화숙 목사 (신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택 목사 (사랑가평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서병서 목사 (가나안영성원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스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뮌엘교회)	우광택 목사 (해미루대광교회)	정에스티 목사 (예수왕기기도원)
회 원	회 원	회 원															
																	
조건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백용완 목사 (순복음천원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 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해군 전력과 신앙 무장...손원일 선교센터 재건

한국사회와 교회의 관심과 기도 참여가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해군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가 대한민국 해군은 육·해·공군 3군 중 가장 먼저 창설되었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 손원일 제독은 1945년 11월 11일 '신앙과 애국심'을 기조로 한 '신사해군과 믿음의 군대'인 해군을 창설하고, 1949년 4월 15일에는 '무적해병대'를 창설하였다.

민음의 지휘관들이 이끈 해군·해병대가 6·25전쟁의 국난 극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또 손원일 제독은 1948년 한국군에서 처음으로 정당한 목사를 해군 장교로 임관시켜 군종업무를 시작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군종 목사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해군본부 인사국장 김대식 중령 관사에서 15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이는 또한 최초의 군인교회 태동이었다. 이와 같은 최초의 역사는 오로지 신앙전력화를 통해 강하고 담대한 해군·해병대를 건설하기 위한 발자취이자, 육·공군 등 타 군에도 모범이 되는 시도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열정적이며, 선도적이던 해군·해병대 교회는 군종목사와 군인교회, 그리고 예배장소의 절대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해군의

특성상 주 전력인 200여 척의 함정에 군종목사를 파견할 수가 없고, 출동 함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병대의 경우는 기본 전투단위인 대대급 부대와 크고 작은 도서지역의 격·오지 부대에도 역시 군종목사를 파견할 수가 없어 예배모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함정(艦艇)과 전방부대 예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군·해병대 34개 교회는 상향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여,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해군 창설자인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민음의 선배들의 창군신앙과 신사 해군의 근간을 이루는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하는데, 수적으로 부족한 군종목사를 돕고 각 함정과 해병대의 대대급 부대에서 예배를 인도할 초급장교와 부사관을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시켜 '작은 목사'로 파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1973년에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성장해 오고 있는 신앙훈련 공동체인 '원일다락방'을 계승·발전시키는 '손원일 선교센터'를 재건립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손원일 선교센터'를 통한 해군 선교의 비전은, 동·서·남해상 함정을 비롯하여 해군·

해병대 장병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형의 200여 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신앙 전력화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 극대화로 '밀송의 해군·해병대 건설'에 기여하는 물론, 나아가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하여 사회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참다운 삶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하여 재단법인손원일선교센터(이사장 김덕수, 사무총장 이기식, 지분목사 양승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손원일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선언을 했으며, 이에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시설규모는 대지 1,720㎡, 4층, 시설은 손원일 기념관 및 해군선교 역사관, 예배당, 세미나실, 식당, 숙소와 휴게실로 구성한다. 예산 규모는 약 50~60억 원이다.

후원 방법은 매달 한 구좌 3만 원으로, 3년간 1백만 원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이미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해군을 사랑하며, 국가의 안위와 군 전력화를 위하여 뜻과 관심이 있는 분들에 의한 더 많은 참여로 강군 해군·해병대 육성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02-810-2170)

문학인재발굴, 한국문학 발전 위해 정진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박영를 목사 헌신 다짐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발행 편집인 박영를 목사·사진은 지난 1월 17일(목) 오후 4시 서울 마포 광흥창역 인근 사브향 마포광흥창역에서 2018년도 신인상 등단 및 2019년 신년 모임을 갖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문학동지 선후배 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등 한국문학의 발전을 위해 한미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은 김삼중 시인(한국소피스트문학회진흥회 고문)의 사회로 시작되어 개회선언, 국민의례,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 발행 편집인 박영를 목사의 내빈 소개 및 개회사, 김봉균 박사(주간 평론가)의 인사말씀, 조운파 회장(작가회 대표회장 작곡가)의 환영사, 유승우 박사(지분위원장, 시인)의 신인상 심사평, 김봉균 주간의 신인상 등단자에 대한 등단과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신인상 등단자는 장영기(수필), 배성민(시), 현



광희(시), 박일기(시), 하지영(수필) 등 5명으로 목회자, 화가, 식당운영, 전직 승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문학인의 꿈을 펼쳐온 문학계의 싹들들로 발군의 실력을 나타내 보여 이번에 하나로선 사상과 문학을 통해 정식

으로 문학계에 등단하게 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문학계의 거목들인 이상보, 김종삼 고문의 격려사, 엄기원 고문의 축사, 신유하 선생의 축시낭송, 장지훈 시인의 축사 및 선임장 전달, 박정수 소설가와 박정해 시인의 축주, 이강영 수필가와 하이네 시인의 축시, 등단자 5인의 낭독 및 인사, 운영위원장 김삼중 시인의 광고 및 폐회선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만찬의 시간을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CTS “대안교육 법제화 위한 공개토론회”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 정기원 '이하 기대연')과 협력해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지난 1월 24일 1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박찬대 의원이 발제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미인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기독교대안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는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1부 토론회에서는 김한표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해, 박찬대 의원과 김관영 의원, 그리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장이 법률안에 대해 발의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간 이사장이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한 제안”을 주제 발표했다.

토론 주요 내용은 대안학교가 미인가일 경우 발생하



는 문제와 대안교육 법제화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대안교육법의 문제점을 통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토론회로는 현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목사, 교장 그리고 대안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재 대안교육에 대한 문제와 바라는 점을 통해 법안으로 이루어 지길 바라는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CTS기독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었다.

구세군, 노숙인 시설 은평의 마을 운영

13일, 은평의 마을 동행 감사예배 드려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시립은평의마을'을 한국구세군이 수탁 운영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라는 의미로, 지난 1월 13일 은평의마을 대강당에서 “은평의마을 동행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번에 구세군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노숙인 시설은 1개 부지 안에 은평의마을(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 생활인 740여 명), 평화로운집(중증장애시설, 생활인 140여 명), 은혜로운집(정신요양시설, 생활인 160여 명)의 세 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노숙인 시설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하다.

은평의마을의 전신은 1961년 개원된 시립경생원으로, 이후 1981년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38년간 위탁 운영해왔다.

이날 열린 동행 감사 예배에서 서문교회 손달익 목사는 “삶의 어려운 풍파를 만난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며, “구세군이 지역사회 사역을 통해 사회의 버팀목이 돼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이어 이 뜻깊은 사역에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 다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다짐을 건넸다.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눅 10:25-28)”이라는 설교를 통해 “구세군의 장



림자가 사역을 통해 가장 처음 한 일이 바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이었다며, “은평의마을에서 이루어질 사역도 장림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소중한 가치”로, “미음과 뜻과 함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 앞서 은평의마을에서는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나눔, 2019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이 있었다.

이 전달식에서 한국구세군은 은평의마을 세 개 시설에 사랑의 쌀 800포(8000kg)를 전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남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물이 차올라 성전 재건 축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전남 무안갯벌에서 염전을 하는 안수집사님께서 건축재정을 위해 '무안 천일염'으로 헌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무안 천일염'의 판매수익금을 새 성전 건축에 보태어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에는 아직도 많은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기도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만풍염전에서 생산한 100% 무안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한 친환경 갯벌입니다. 갯벌염전은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빛과 바람에 의해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안전합니다.



구 입 문 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를 변화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2019년 ‘생명 나눔’으로 시작

전국 4교회, 106명 성도들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국 4개 교회가 생명 나눔을 약속하며 새해를 한자 게 시작했다. 전남 장성군 장성중앙교회(담임 장종섭 목사)는 지난 1월 13일 주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를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이웃사랑을 다짐했다.

이날 장종섭 목사는 “교회를 향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 안의 화평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광주·전남지부 황성현 본부장이 생명 나눔을 실천한 뇌사 장기기증인 및 신장기증인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감동을 전했다.

또한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는 이식대기자들의 현실을 알리며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했고, 이에 41명의 성도들은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같은 날 전북 익산에 위치한 행복한교회(담임 조명훈 목사)에서도 생명의 물결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07년 한 차례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희망을 나눈 바 있는 성도들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생명 나눔에 뜻을 모았고, 그 결과 33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13일 하루 동안 대구 소재 꿈이있는교회(담임 김영복 목사)와 경기도 안산 맑은샘교회(담임 노은한 목사) 등 전국에서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모두 106명의 성도들이 생명 나눔의 선한 사역에 함께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생명 나눔으로 희망을 선물한 한국교회에 감사하다”며, “도움을 힘입어 어려 가운데 믿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나눠준 사랑을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 워크숍

세기총 주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세기총은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 워크숍’을 지난 12월 31일 세기총 회의실에서 결혼 가정사랑학교 대표 송기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가졌다.

이날 세기총은 이주민가족 30여 명에게 작은 선물도 전달하고 정성 어린 오찬도 제공했다. 또한, 이주민 봉사단원들과 봉사단 지분위원장인 목사, 장로, 그리고 여러 교회의 사모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을 이야기하며 또 한 번의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뮤지컬 ‘천로역정’을 관람하며 1

일간의 짧은 워크숍으로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9년 멋진 새해를 기대하는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다.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은 이주민이 도움을 받는 자에게서 도움을 주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을 주며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기기 위해 지난 해 4월 7일에 창단하였다. 창단식 후 이주민봉사단은 서울역 근처 노숙자 및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나눔봉사를 하며 세기총 행사에 참여하여 큰 도움을 주는 한편 다문화가정부모초청기간 중에도 봉사를 통하여 같은 다문화가정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영혼구원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저는 춘천 오순절교회 사모 임보배입니다. 어느 날인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편함마다 집회 전 단지를 돌리다가 봉사와 섬김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체부원과 계속 마주쳤는데 나는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보수는 없고, 저 분은 똑같이 수고함에 대한 보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하는 일이 헛수고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가정에서 저녁 성경묵상시간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는 말씀을 읽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엇으로 섬김의 본을 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통정의 일을 자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데 그 중 강원도가 1위, 또 그 중 춘천이 1위였고 제가 속한 아파트가 가장 취약한 동네였습니다.

마침 국가정책으로 정신질환자 및 우울증, 독거노인, 자살 경향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통화, 문자 등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파악

하여 자살예방에 힘쓰는 결과 올해는 강원도가 전국 4위 가 되었고 저희 동네에 자살자가 한분도 안 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 표창의 영광도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가가호호 방문할 때마다 아이기의 끝엔 영생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세트전도에서 배운 예수님 영접기도를 통해 영혼구원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고전 15:58)는 말씀을 믿고 경함하며 오늘도 내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신 섬김의 기회를 추수로 잘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CTS제주방송 ‘2019 신년감사예배’ 개최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은 지난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CTS제주방송에서 운영 이사과 위원, 동역교회, 지역교계 목회자 및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 비전 선포 및 시청자들에게 신년 하례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신년 감사예배와 2부 신년하례회 3부 오찬 및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CTS제주방송 운영이사 현성길 이사(제주주교광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제주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열 목사(비전교회)의 기도, 이사장 오공익 목사(제주중문교회)의 설교, 서귀포시교회협의회 회장 임진성 목사(서귀포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롬 13:1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CTS제주방송 오공익 이사장은 “CTS가 영상을 통한 선교사역을 통해 제주의 문화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내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란다”면서 “개국 8년이 되는 올해에도 운영이사를 비롯한 후원자들이 합심하여 CTS제주방송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시무사를 통해 “2019년 CTS는 영상선교사역과 함께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CTS가 제주를 밝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세상

에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국 8주년을 맞는 CTS제주방송은 다음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2019년 비전으로 선포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방송영역 확장과 다음세대 발전을 위한 기독교육 선교, 기독교 신도회 회복과 영향력 확대, 도내 교회 및 교단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울부흥선교협 신년하례 및 기도회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위해 뜨겁게 기도

세계바울부흥선교협회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9년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갖고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해 회원모두가 하나되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도회 1부 예배는 최남복 목사사회로 문원순 목사의 기도, 노병훈 목사의 성경봉독, 삼재선 목사의 시 5: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복 주시길 원하노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된 예배는 기태엽 목사의 헌금기도, 황준익 목사의 헌금

송, 조지현 목사의 성사낭독, 김중석 목사의 광고 후 황준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오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 삼재선 목사의 사회로 개회기도에 이어 강봉규 목사가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김중석 목사가 ‘목가안보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참석자 모두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뜨겁게 합심기도를 했다.

실행위는 다음 모임을 오는 3월 15일 갖기로 한 후 이성민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상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어와 500ml 30개 들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2019년 제1차 조찬기도회 및 신년하례식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1월 18일(금) 배방에 소재한 택민교회(이정팔 목사 시무)에서 2019 신년하례식과 조찬기도회

를 갖고 현 한국사회와 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타개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김리교 원로목사 김소윤 감독이

요삼 1:3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혼란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조이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박노섭 목사(심광교회)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황기식 목사(동산교회)가 나라의 안보 및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온재현 목사(관혜교회)가 아산지역교회와 회원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이은혜 목사(평안교회)가 아산시번영과 지도자를 위하여, 박해서 장로가 성평등정책과 인권조례안폐지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3부 순서인 하례식과 보고회에서는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가 “이제까지 조찬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자”고 당부하였으며, 이어진 아산시기독교연합회의 업무보고와 바른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인권센터의 진행내역을 보고하며 전술과 전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이제인 창로 // 은혜와진리교회

나를 비우게 하소서

기다리라.
멈추라.
잠잠하라.
주라.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라 했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요
멈추라 했으니 주님이 가실 것이요
잠잠하라 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주라 했으니, 제게 있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한 저에게
두 귀 가지고 듣지 못한 저에게
원망 불평이 식사보다 많았고
나보다 남이 더 많이 잘못한 것이고,
내가, 내가 한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하나님 명하시니 잠에서 깨나이다

이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가슴을 열고 사랑으로 듣게 하고,
겸손으로, 소망으로, 섬김으로 나를 비우게 하소서.

받아들고 감사하기보다는 약속 주심을 감사하고,
잃은 것보다 얻은 것 더 기억나게 하고
비우고, 버릴 때 주님의 것으로 채우소서
기도하는 기쁨이 본업이 되게 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의지하는 습관을 주옵소서.

그래도 매일 죽지 못하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아나이다

한국창조과학회, 기도회 및 겨울 워크숍 개최

한국창조과학회는 2019년 1월 11일(금)부터 1월 12일(토)까지 한국창조과학회 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생명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수원에 위치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2019년 한국창조과학회 기도회 및 동계 워크숍'을 가졌다.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몽골 국제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보아스 최 박사의 '바벨탑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언어학적 증거'를 시작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현대 언어학 이론을 비롯하여 발음의 위치에 따른 언어 에너지의 크기, 자음과 모음에 따른 언어의 크기 등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가 가지는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

학회 창립 38주년 기념예배에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 총장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시 126:5)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조과학회와 합선이 교회와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38년 동안 씨를 뿌려왔는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좁고 험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함께 가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때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한윤봉 회장은 창조과학회 비전 선포사에서 성경적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는 불씨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롭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약 2800년 전에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욥 1:2)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회종과 함께 선포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아담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로 아담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원형적 인물 또는 부족의 족장 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진화론에 조화시키기 위한 성경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신화적 세계관을 비교하는 강연을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언어학적, 신학적, 생물학적 내용을 다루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워크숍 주제와는 색다른 내용으로 강사와 참석자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끝까지 자리하며 창조에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국방부는 1월 15일 펴낸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애둘러 냈다.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 조성을 이유로 들며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킬 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하는 정권, 분명하게 엄중하는 적조차 모호하게 흐려 국력의 목표부터 흔들리게 했다.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굴종적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실지어 주일 미군사령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보유 선언국'으로 공표하며, 북한이 15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도 적시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의 부재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대한민국 안보가 지극히 위험하고 엄중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에 절체절명의 과제인 북핵 폐기는 더 요원해지고 있다.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도 잃고, 국가 안위의

근본이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뒤 재개를 요청해야 함에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남북 동포들의 소망을 해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적반하장적 꾀를 늘어놓아도 추켜세우고 남북 정상이 한목소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의 결집들이 미국인 듯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 운운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북한 핵으로 야기되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이 때문이다. 북 핵 폐기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 핵무장을 거드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남은 것은 경상도 이남 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서 목사들을 모으고 합심기도를 부탁하였다. "부산까지 북한군에 점령당하면 이 나라는 자유 없는 공산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다시 복전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훼손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국가인권위)는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 대관 불허는 집회 자유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징계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공표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 미인가 동아리인 모 단체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흡혈사회에서, 현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현대"라는 알송달송한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려 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내용의 행사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주최 측은 이를 강행하였고, 학교에서는 부득이 그 학생들을 징계 하기에 이르렀다. 학교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본다.

학생들이 징계를 당하자 그 징계가 부당하다며 집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난해 1월 국가인권

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제17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동대 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결정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들이 2017년 12월 당시 강의했다는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면실제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 강사들은 동성애는 물론, 난교(亂交)와 성의 상품화 등 그야말로 인간 삶의 존엄성과 성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내용을 주저 없이 담고 있다.

학교 측이 학교의 기독교 건학이념에 크게 반하는 것을 강행하므로 징계한 것이 문제라 된다면 이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크게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이렇듯 인간의 바른 성품과 바른 인격수양을 외면하고 비인간적, 인간성 말살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집회가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사이트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마사지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원터그린오일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치고 통증에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서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배개 등에 한 두방울 사용합니다.

파우더함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서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배개 등에 한 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파우더함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